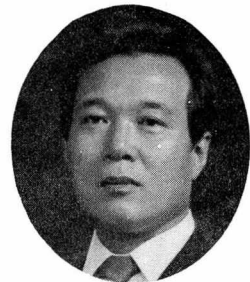


# 노동부장관 취임사



노동부장관 崔 明 憲

친애하는 노동부 공직자 및 산하단체 공직원 여러분!

본인은 먼저 훌륭한 추장관님을 보필하며 노동행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치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 유례가 없었던 국민총선에 의한 평화적 정부이양으로 새로 출범하는 제 6 공화국 탄생과 더불어 노동부를 맡아 일하게 되었다는 점에 본인은 큰 의의와 사명감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경제의 안정적 지속성장이라는 명제와 민주화의 큰 그릇 속에 국민대통합의 새 질서를 형성해 나가야할 명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이끌어 가야 할 산업사회도 마찬가지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민주화에 의한 자율과 생산성에 대한 책임 그리고 분배정의 현실에 의한 노사대화합의 새로운 윤리의식의 정립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바탕위에 세워져야 할 새로운 질서의 슬로우건으로서 본인은 인간중심주의를 제창하고 싶습니다.

노사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사람이 주인이라는 생각과 사람이 우선이라는 의식을 갖고 노사 모두가 종래의 권위주의나 의타주의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도덕율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중심주의라는 사랑의 가슴을 갖는 노사가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이루어가는 자율질서속에 우리 나름대로의 한국형 노사관계가 정립될 때 우리나라는 선진고도산업사회로서 손색없는 장래가 약속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에게 희망과 보람을 안겨주는 새로운 차원의 정책개발이 우리 노동부에 요구된다 하겠읍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명을 본인과 함께 수행해 주실 여러분에게 이자리를 빌어 최선의 뒷받침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몇가지를 당부하고자합니다.

첫째, 노동부의 시대적 사명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제몫을 찾아 충실히 일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사회가 성장하면서 노동자들의 욕구가 양과 질면에서 다양해지고 노동부의 역할에 대한 노사간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부는 종합적인 인력행정 기구입니다.

직업훈련과 직업안정기능을 통하여 인력을 형성·배분하고, 노정·근로기준·산재보험등 여타 기능을 통하여 인력을 활용·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 “ 산업안전과 보건문제는 경제적견지에서 뿐 아니라 휴머니즘적 측면에서 다같이 잘사는 사회를 이루는데 반드시 유념하여야 할 과제 ”

앞으로 노동부의 이와 같은 역할 수행을 최대한 활성화함으로써 경제부처로서 그리고 사회부처로서의 성격이 복합된 명실상부한 인력행정기구로서의 사명을 다해 나가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력을 형성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력을 배분하고 활용·보존하는 기능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인력배분의 측면에서 보면, 쓸모있게 키워진 인력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사장되는 예를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인력활용 역시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노동행정은 국민의 모든 잠재력을 100% 발휘케하여 국민생산력을 극대화시키고 만족할만한 근로복지행정을 통하여 총체적인 행복과 화합을 키우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취임과 더불어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래 노동행정을 포괄하면서 인력정책차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을 갖고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노사자율화 시대를 맞아 노동행정의 대처능력을 제고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엄청난 노사분규를 겪었고 그 해결과정에서 노사자율자치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노사분규에 대해 신속하

면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갔느냐를 돌이켜 볼 때 결코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노사문제의 대처라는 것이 단순히 노동부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본부와 지방관서간의 유기적 상황 대처라든가 지역별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등이 일단 문제발생후 사후수습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중요하며, 분규가 현실화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단계별·유형별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부는 전체 총괄적 입장에서 유관부처와의 협의속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방노동관서는 지역적 상황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해 지역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사분규의 대처방안이 분야별·단계별·유형별·지역별로 확립되어 우리 노동행정 전공직자에게 훈련되고 체질화될 때, 노사자율치관행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며, 이에 우리는 공정한 조정자로서 정부역할을 다하였다 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로 당부드리고자 하는 점은 진정한 근로복지의 구현을 실천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지난해의 노사분규의 근본원인이 노동부 나름대로 여러 각도로 분석평가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만, 본인은 지금까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상대적 빈곤감이 그 저변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땀흘려 일하고 경제성장에 주력해 온 것이 누구 한사람만 잘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모두가 잘살자는 것입니다. 그 궁극목표를 보다 빨리 달성해가는 길이 어느 길이나에 대한 방법론과 과정론에 관한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상 마찰이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도 소득재분배와 근로복지의 실질적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할 때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부터 실시되는 최저임금제도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고용보험등 제도 개발이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산업안전과 보건문제에 보다 진격하자 세로 대응해 달라는 것입니다.

참여자에 대한 분배원천의 증대와 공평한 분배도 중요하지만 분배원천의 손실방지도 못지 않게 중요하며, 이 문제는 경제적 견지에서 뿐 아니라 휴머니즘적 측면에서 다같이 잘사는 사회를 이루는데 반드시 유념하여야 할 과제라고 본인은 믿습니다. 다행히 한국산업안전공단도 발족되었고 산재보험도 착실히 발전되고 있어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는 좋은 성과를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자리에서 당부드린 이상과 같은 일들은 노동행정의 전문가이신 여러분께서 책임있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여러분의 사업추진의 방향을 잡아주고, 매듭이 있으면 풀어주고, 힘이 부족하면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본인과 같이 일하시는 동안 여러분 모두가 공사간에 큰 발전이 있고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1988. 2. 26

